



전국 > 광주·전남

## 선박 화재 시 대피용 격벽 'A60' 국내 최초 개발

60분간 930도 이상 화염에 대한 방화 성능 유지 목포대·현대삼호중공업·동은정공 등 공동 연구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2017-09-22 09:54 송고



선박용 'A60' 격벽. ©News1

목포대학교와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이 주관하고, 현대삼호중공업과 동은정공(주)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선박용 'A60' 격벽과 갑판 관통관 개발에 성공했다.

22일 목포대에 따르면 선박용 'A60'은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때 60분간 930도 이상의 화염에 대한 방화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국제해사안전위원회의 규격이다.

공동 컨소시엄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프로젝트랩과 산학융합R&D 수행을 통해 '선박용 A60-클래스 벌크헤드 관통피스' 개발 주제로 추진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 최대 조선소와 동남권 조선해양기자재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의 성과로 국내 최초로 한국선급을 비롯한 해외 우수 선급의 인증을 획득했으며 특히 출원 2건의 실용화 실적도 창출했다.

송하철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원장은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설계, 성능평가, 공인 시험평가 등의 전 과정을 국내 최초로 성공리에 수행해 국제해사안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방화규정을 만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은정공은 연구개발에 성공한 A60 격벽과 갑판 관통관을 현대삼호중공업에 납품할 예정이며, 국내 조선소로부터 발주문의를 받는 등 매출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